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에서의 실제 문해활동과의 관계 연구

Mothers' beliefs on the whole language approach and self-reported home literacy practices with their children

송승민* · 임애런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복지학과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전공

Song, Seung-Min · Lim, Aeryon
The University of Suwon ·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others' beliefs regarding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and self-reported home literacy practices with their children.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measured mothers' beliefs toward the whole language approach against the traditional approaches in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The total number of 340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o are sending their children to daycare centers of kindergartens in Seoul and its suburban area.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Spearman's rho, and Kendall's tau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beliefs on the whole language approach have relationships with their home literacy practices, an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such as mothers' education, their spouses' education, and income - were also related with mothers' beliefs.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lore the inter-relationship of mothers' beliefs with home literacy practices, and also the importance of mothers' belief system on children's literacy learning at home.

Key Words : the whole language approach, literacy development, mothers' beliefs

I. 서론

문해발달은 문자언어의 습득이라는 궁극적 목적 외에 학령기 학업성취와의 긴밀한 연관성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의 중요한 교육적 관심이며 교육내용이다. 아동의 읽기와 쓰기 발달 과정의 전개 및 교수방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논쟁이며, 이에 대한 신념은 유아를 위한 문해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20년대 초기에는 일정한 정신연령에 이르러야 문자언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보는 성숙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문자 언어 습득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이차숙, 노명완, 1994; 위영희, 2004). 이러한 성숙론적 견해는 1960년대에 이르러 체계적인 문자언어의 지도방법이 성숙보

다 문해발달에 더욱 중요하다는 행동주의적 관점에 의해 변화되어졌다(이차숙, 노명완, 1994). 외부적으로 구조화된 학습경험에 의해 문자언어의 조기 습득이 가능하다는 행동주의적 관점은 이후 문자언어 지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문자 언어는 자극과 반응의 누적된 결합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기능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위계적 교수방법은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지금까지도 아동의 문해지도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문해교육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전통적인 언어 교수법의 대안이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아동들에게 좀 더 흥미 있는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어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Goodman, 1976).

총체적 언어접근 방법은 단순한 언어 교수방법이라기

* Corresponding author: Seung-Min Song
Tel: 031) 220-2597
E-mail: smsong@suwon.ac.kr

보다는 언어습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와 듣기가 읽기와 쓰기에 선행한다는 기존의 언어 발달의 전개를 비판하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동시에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유아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자에 노출되어짐으로써, 유아의 문식성 발달은 형식적인 문해교육을 받기 훨씬 이전에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Harste, Woodward, & Burke, 1984; Teale & Sulzby, 1986). 길거리의 간판, 상품, 신문 등 유아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인쇄물을 통해 유아의 문식성 발달은 문해교육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언어의 규칙을 습득한다. 따라서 성숙주의적 시각에 근거한 언어발달의 고전적 전개를 비판하고 언어의 영역을 분리된 기능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된 언어의 기능들은 유아에게 의미 있는 실제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습득되어진다고 주장 한다(Au, Carroll, & Scheu, 1997; Goodman, 1986). 따라서 읽기의 과정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내적 작용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Goodman, 1992).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방법은 낱글자의 암기 위주였다면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는 낱글자 중심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의미 있는 언어의 덩어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낱글자의 단순 암기를 통한 문해습득 보다는 의미를 담은 내용의 맥락이 중요하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을 하향식(Top-down) 신념 체계로, 전통적 관점을 상향식(Bottom-up) 체계로 정의한다. 상향식 신념은 낱자나 낱말과 같이 작은 단위를 배워서 큰 단위로 나아가도록 철자, 음소, 단어들과 같은 문자 상징을 발음으로 해독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철자-발음 지향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순, 1999; 위영희, 2004; 홍인숙, 2001). 작은 단위를 학습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통적 신념에 의하면 의미 이해를 위해서는 낱자와 단어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하향식 신념은 작은 단위를 배우고 그 연결 패턴을 인식하여 큰 언어 단위로 나아가는 상향식 신념과는 달리,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에서 언어를 배우고자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습의 방향이 상향식과는 역방향으로 전개되어진다(홍인숙, 2001). 하향식 또는 총체적 관점에서는 문해습득이 낱글자의 반복적인 암기와 훈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풍부한 문해환경에서 문어를 경험하는 다양한 문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유아가 문어를 배우는 것은 구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이유, 즉 그 언어를 사용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Sulzby, 1986).

총체적 언어접근에서 의미하는 총체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이차숙, 노명완, 1994; 제경숙, 2002): 첫째, 언어의 기본 단위는 분절된 요소가 아닌 의미의 덩어리이다. 둘째, 언어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언어교육은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총체성의 함축적 의미는 총체적 언어접근의 교수 원리로 적용된다. 이 외에 총체적 언어 접근의 교수 원리는 유아의 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직접적인 지시나 오류의 수정을 피하는 것과 유아 스스로의 경험과 흥미에 따른 활동 선택을 포함한다(이옥섭, 2001).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총체적 언어접근의 기본 신념 및 언어 교수 원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어떠한지 밝히고자 하며 실제적인 문해활동은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총체적 언어접근은 전일 프로그램으로 전체 교육과정, 교실, 가정, 주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아의 일상생활의 일부로써(제경숙, 2002), 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총체적 언어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의 전적인 동의가 없다면 신념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고,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적용되더라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식성 지도가 반복적인 암기와 낱글자 중심 훈련에 집중되어 있다면 총체적 언어 접근의 근본적 교육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접근은 교사와 부모가 총체적 언어접근의 교육 목표를 이해하고 동의할 때 비로소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질 수 있다.

부모의 신념과 가정에서의 문식성 지도가 유아의 초기 문해발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Campbell, Goldstein, Schaefer, & Ramey, 1991; DeBaryshe, 1995; Stipek, Milburn, Clements, & Daniels, 1992). Senechal과 LeFevre(2002)의 연구에서 168명의 유아의 문식성 발달과정을 5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관찰한 결과, 가정에서 행하는 부모의 문식성 지도가 초기에 습득하는 문식적 기술(literacy skills)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책에 대한 노출의 정도는 읽기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개입이 자녀의 초기 문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으며, 부모의 문식성 지도 방법은 그들이 가진 문식성에 대한 신념 체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DeBaryshe(1995)는 문식성에 대한 부모의 신념 체계가

읽기 능력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신념과 책에 대한 유아의 흥미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가 풍부한 읽기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면 책에 대한 유아의 흥미도는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권희경과 송진숙(2000)은 부모가 가진 쓰기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다양한 부모의 태도 변인이 다각적으로 가정에서의 문식성 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문식성 발달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가정에서 행하는 문식성 활동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총체적 언어접근에 관한 연구는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총체적 언어 접근 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김정규, 김남미, 1997; 이성은, 황영미, 2003; 이항재, 한복연, 2000; 조정옥, 이달석, 2002),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유승연, 1998; 이성은, 오은순, 2002; 정숙경, 2001a), 총체적 언어 접근에 대한 교사의 신념에 관한 연구(유승연, 2000; 정숙경, 2001b; 정숙경, 2004)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총체적 언어접근에 관한 부모의 신념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유아에게 문해 환경을 제공하고 문해활동을 함께 하는 어머니가 가진 언어적 신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유아 언어 교육의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언어적 신념을 전통적 언어 신념과 총체적 언어신념으로 분류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언어 신념은 어떠한지 밝히고, 가정에서 자녀와 행하고 있는 문해활동의 실체는 어머니의 신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어떠한가?
2. 어머니가 가진 언어적 신념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3. 어머니가 가정에서 행하는 문해활동의 실체는 어떠한가?
4. 어머니가 자녀와 가정에서 행하는 문해활동의 실체는 총체적 언어신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아의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어린이

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어머니로 총 340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환경	구분	빈도	퍼센트
어머니의 교육 수준	고졸	72	21.18
	전문대졸	60	17.65
	대졸	186	54.71
	대학원 이상	22	6.47
	합계	340	100.00
배우자의 교육 수준	중졸	1	0.29
	고졸	42	12.35
	전문대졸	39	11.47
	대졸	196	57.65
	대학원 이상	60	17.65
	무응답	2	0.59
합계	340	100.00	
배우자의 직업	자영업	69	20.29
	공무원	51	15.00
	무직	4	1.18
	생산/기술/서비스직	30	8.82
	사무직	84	24.71
	전문/관리직	72	21.18
	기타	27	7.94
	무응답	3	0.88
합계	340	100.00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202	59.41
	자영업	22	6.47
	공무원	33	9.71
	무직	1	0.29
	생산/기술/서비스직	6	1.76
	사무직	27	7.94
	전문/관리직	27	7.94
	기타	21	6.18
무응답	1	0.29	
합계	340	100.00	
가정의 월 총 소득	~100만원	2	0.59
	100만원~200만원	23	6.76
	200만원~300만원	108	31.76
	300만원~400만원	103	30.29
	400만원~	103	30.29
	무응답	1	0.29
합계	340	100.00	
부모의 평균 연령	어머니의 연령	34.88 (24~46)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은 고졸 21.18%, 전문대 및 대졸이 72.36%,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6.47% 였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12.35%,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이 75.3% 였다. 이러한 점은 조사대상 아동들의 부모들의 학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며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학력 수준이 높음도 나타나고 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59.41% 이었고, 취업모의 경우 자영업, 공무원, 전문/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는 사무직, 전문/관리직, 자영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그 외 공무원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의 월 총 소득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400만원 이상이 약 30% 정도의 수치로 분포하며 이는 조사 대상의 경제적 수준이 각 계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4.88세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 그리고 가정에서 행하는 실제 문해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어머니의 언어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Yoo(1996)가 개발한 유아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 신념(Teachers' Beliefs Related to Children's Literacy) 이라는 질문지를 부모에게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Yoo(1996)가 개발한 TBRCCL 은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12문항과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실상황과 관련된 문항들과 부모가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어휘를 부모에게 맞게 고쳐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은 14문항으로, 전통적 언어 신념을 묻는 문항은 11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측정 도구를 개발한 Yoo(1996)의 연구에서는 7점 척도 수준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체적 언어신념의 경우 점수가 클수록 총체적 언어에 대한 동의정도가 크고, 전통적 언어신념의 경우 점수가 클수록 비동의정도가 크다(유승연, 2000).

가정에서 자녀와 행하는 실제적인 문해활동에 관해 묻는 질문은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틀린 글자를 매번 수정해주는지, 반복적인 글자쓰기를 시키는지,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지, 후속이야기 짓기 및 단어 놀이 등 다양한 문해활동을 격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졌다. 실제적인 문해활동에 관한 13문항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문해활동을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구

성되어졌으며 예비조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언어적 신념을 묻는 문항의 타당도 조사를 위해 5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문항간 신뢰도는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의 Cronbach alpha 0.69 였고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0.77 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도는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의 Cronbach alpha는 0.69 이었고,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의 Cronbach alpha는 0.77 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 이전에,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 문항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5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난해한 어휘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2곳, 그리고 분당에 위치한 유치원 1곳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440부 중 347부를 회수하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하고 총 34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포함하는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Spearman's rho 와 Kendall's tau를 사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총체적 언어 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신념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인 문항은 '언어는 아이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다'(4.19), '언어를 가르칠 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따로 가르치기 보다는 상호관련적이어야 한다'(4.27),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효과적으로 읽기를 배울 수 있다'(4.18), '부모는 하루에 한번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한다'(4.40),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을 통해 표현할 때마다 격려해준다'(4.46) 이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추구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상호관련적인 발달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신념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동화책을 매일 읽어주어야 한다는 문항과 쓰기에 대해 격

<표 2> 문항별 신념 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4.19	0.70
2	4.27	0.78
3	2.57	0.94
4	1.89	0.70
5	3.21	0.96
6	3.41	1.02
7	2.89	0.99
8	4.08	0.62
9	3.35	1.12
10	4.18	0.74
11	2.56	1.01
12	2.63	0.93
13	3.21	0.89
14	2.84	0.97
15	3.88	0.82
16	4.11	0.66
17	2.82	0.87
18	4.40	0.67
19	3.10	0.99
20	3.66	0.90
21	4.13	0.75
22	4.46	0.65
23	3.16	0.95
24	2.84	0.95
25	3.89	0.88

려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반면에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 중에서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인 문항은 ‘아이들은 영아기 부터 읽기 쓰기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3.21), ‘아주 어린 유아들도 쓰는 것의 의미를 안다’(2.89)와 같은 발현적 문식성 발달에 대한 문항이었다.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문항은 ‘아이들은 학습지를 통해 글자를 배워야 효과적이다’(3.66) 이다. 문식성 습득에 있어서 학습지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문항은 다른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 중에서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준다.

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신념

<표 3>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신념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수행하는데 데이터가 연속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 데이터를 위한 상관분석으로 모수적인 방법인 Spearman's rho와 비모수적인 방법인 Kendall's tau를 함께 수행했다(Snedecor & Cochran, 1989). 상관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 방법에서 상관관계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

<표 3> 인구학적 변인과 신념과의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인	상관계수	
	Spearman's rho	Kendall's tau
자녀의 수	0.08	0.07
응답 대상 자녀의 형제 순위	-0.02	-0.02
어머니의 교육 수준	0.15***	0.12***
배우자의 교육 수준	0.30***	0.24***
배우자의 직업	0.05	0.03
어머니의 직업	-0.02	-0.01
가정의 월 총 소득수준	0.09*	0.07*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구학적 특성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체적 언어에 대한 신념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가정의 월 총 소득 수준의 경우도 비록 계수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소득이 커질수록 신념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외에 자녀의 수, 자녀의 형제 순위, 부모의 직업은 문식성 발달에 대한 부모의 언어 신념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3. 가정에서 행하는 문해활동의 실제

가정에서 행하는 실제 문해활동은 ‘아이가 낱글자나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서 글자를 배우게 한다’(40.59%), ‘아이와 함께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이의 목소리나 이야기 등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본다’(68.53%), ‘아이와 책을 읽은 후 후속 이야기 만들기를 한다’(44.12%)는 40%가 넘는 어머니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게 한다’(62.35%), ‘아이와 끝말잇기 등의 단어놀이를 한다’(51.83%),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51.18%), ‘아이가 일생생활에서 겪을 만한 실제적인 상황이 담긴 동화를 읽어준다’(58.82%)는 50%가 넘는 어머니들이 ‘가끔한다’고 응답했다. ‘아이가 낙서하거나 긁적거리는 것을 격려해 준다’(40.00%), ‘아이가 쓴 낙서나 긁적거린 내용을 아이에게 묻거나 아이가 읽어보게 한다’(39.41%)는 약 40%의 부모들이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 약 30%의 어머니들이 ‘항상 한다’고 응답한 문항은 ‘아이가 낙서하거나 긁적거리는 것을 격려해 준다’(28.52%), ‘아이에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준다’(33.82%)이었다. 더 나아가서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의

<표 4>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문해활동

구분	틀린 글자의 수정		낱글자와 단어의 반복적 훈련		낙서나 굵적거림의 격려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하지않음	16	4.71	98	28.83	11	3.24
가끔 함	164	48.24	138	40.59	96	28.24
자주 함	118	34.71	82	24.12	136	40.00
항상 함	42	12.35	22	6.47	97	28.53
합계	340	100.00	340	100.00	340	100.00
구분	책 읽어주기		글이나 그림의 전시		아이가 쓴 글자 읽어보기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하지않음	8	2.35	45	13.24	9	3.65
가끔 함	102	30.00	131	38.53	134	39.41
자주 함	115	33.82	91	26.76	133	39.12
항상 함	115	33.82	73	21.47	64	18.82
합계	340	100.00	340	100.00	340	100.00
구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스스로 책 선택		녹음기 이용		끝말잇기와 같은 단어놀이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하지않음	41	12.06	233	68.53	53	15.59
가끔 함	212	62.35	74	21.76	174	51.18
자주 함	62	18.24	29	8.53	91	26.76
항상 함	25	7.35	4	1.18	22	6.47
합계	340	100.00	340	100.00	340	100.00
구분	후속이야기 만들기		동화 읽고 이야기		실제적 상황이 담긴 동화 읽기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하지않음	150	44.12	16	4.70	34	10.00
가끔 함	136	40.00	174	51.18	200	58.82
자주 함	39	11.47	110	32.35	80	23.53
항상 함	15	4.41	40	11.76	26	7.65
합계	340	100.00	340	100.00	340	100.00

빈도를 합한 빈도수의 합과 '자주 한다'와 '항상 한다'의 빈도를 합한 수를 가지고 문해에 대한 응답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가 낙서하거나 굵적거리는 것을 격려해 준다', '아이에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준다', '아이가 쓴 글이나 그림 등을 보관하고 있다'의 경우 70% 이상이 '자주 한다' 또는 '항상 한다'로 응답해서 많이 실행되는 것이었고,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게 한다', '아이와 함께 녹음기를 이용하여 아이의 목소리나 이야기 등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본다', '아이와 끝말잇기 등의 단어놀이를 한다', '아이와 책을 읽은 후 후속 이야기 만들기를 한다', '아이가 일생생활에서 겪을 만한 실제적인 상황이 담긴 동화를 읽어준다'의 경우 약 70%의 부모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 또는 '가끔 한다'고 응답해서 잘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학습지의 활용에 대한 질

문에 37.5%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62.5%는 1개 이상의 한글 학습지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 어머니의 신념과 실제 문해 활동의 관계

신념과 실제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분석에서도 역시 <표 3>에서와 같은 이유로 Spearman's rho와 Kendall's tau를 사용한다. 결과는 역시 두 상관계수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문항은 6개였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언어 신념의 문항과 문해활동의 실제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 의하면, 총체적 언어 신념이 높을수록 '아이가 낱글자나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서 글자를 배우게 한다'를 덜 실행하고, '아이가 낙서하거나 굵적거리는 것을

<표 5> 신념과 실제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Spearman's rho	Kendall's tau
틀린 글자의 수정	-0.10*	-0.08*
낱글자와 단어의 반복적 훈련	-0.27***	-0.21***
낙서나 굵적거림의 격려	0.20***	0.15***
책 읽어주기	0.16***	0.1319***
글이나 그림의 전시	0.16***	0.12***
아이가 쓴 글자 읽어보기	0.11	0.0892*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스스로 책 선택	0.09*	0.0749*
녹음기 이용	-0.08	-0.06
단어놀이	0.0509	0.04
후속이야기 만들기	0.01	0.0122
동화 읽고 이야기	0.21***	0.17***
실제적 상황이 담긴 동화 읽기	0.19***	0.15***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격려해준다', '아이에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준다', '아이가 쓴 글이나 그림을 벽에 붙여준다',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실제적인 상황이 담긴 동화를 읽어준다'는 더 자주 실행하고 있다.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문항은 Spearman's rho의 경우 2개이고 Kendall's tau의 경우 3개이다. 두 상관계수가 일관된 문항을 보면, 신념이 높을수록 '아이가 틀린 글자를 쓰면 수정해준다'는 덜 실행하고 있고,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게 한다'는 더 많이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Kendall's tau에서만 유의한 '아이가 쓴 낙서나 굵적거린 내용을 아이에게 묻거나 아이가 읽어보게 한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더 자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어떠하며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은 어머니의 신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문해활동은 어떠하며 어머니의 문해활동과 어머니가 가진 신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340명의 어머니들의 신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총체적 언어접근의 교수 원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아동의 흥미에 근거한 아동 주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문항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효과적으로 읽기를 배울 수 있다'(4.18), '매일 아이들에게 자신이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4.13), '언어는 아이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다'(4.19) 라는 문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상호관련적인 발달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도 높은 수준(4.27)을 보였다. 반면에,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언어 교육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으며(3.41), '영아기 부터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3.21)와 '아주 어린 유아들도 쓰는 것의 의미를 안다'(2.89)와 같이 발현적 문식성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다.

낱글자의 반복적인 연습(2.57), 암기(2.63), 보고 쓰기(2.84), 위계적 언어 발달의 전개에 관해 묻는 문항들(1.89, 2.56)과 같이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학습지에 대한 신념(3.66)은 그 중에서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들의 응답은 발현적 문식성 및 교과목 통합을 통한 언어교육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전통적 언어신념보다 총체적 언어신념에 가까웠다. 어머니의 총체적 언어신념을 조사한 홍인숙(2001)의 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신념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해 보다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언어신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발현적 문식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영유아기에 행해지는 의미있는 문해활동을 위해서 이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신념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 중 62.5%의 유아가 한글 학습을 위해 학습지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학습지를 통한 한글학습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신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어머니가 가진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신념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체적 언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통해 나타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10% 유의수준에서 어머니의 총체적 언어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가정의 소득이 커질수록 어머니의 총체적 언어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자녀의 수, 자녀의 형제 순위, 부모의 직업

은 어머니의 신념과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을 들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행하는 문해활동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녹음기를 활용해 말하기와 듣기를 연습하거나, 단어놀이, 후속 이야기 만들기, 실제상황이 담긴 동화 읽어주기와 같은 활동은 약 70%의 어머니들이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응답해서 일상적인 문해활동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낙서나 굵적거리는 것을 격려하고, 책을 읽어주는 문해활동은 약 70% 이상이 자주 하거나 항상 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문해활동임을 알 수 있다. 신념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과 실제 행하고 있는 문해활동의 빈도를 비교해보면, 유아가 스스로 읽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읽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강한 신념을 보인 반면(4.18), 실제로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유아 스스로의 흥미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빈번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을 통해 표현할 때마다 격려해준다'(4.46)에 강한 신념을 보이고, 이와 일관되게 가정에서 유아의 쓰기에 대한 격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실제 문해활동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격려해 주기, 글이나 그림을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것처럼 한정된 문해활동의 경향을 보여준다. 동화책을 읽고 후속이야기를 함께 만들거나, 동화 읽고 이야기하기, 녹음기를 이용하거나, 단어놀이를 통한 문해활동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자주 행해지지 않고 있다.

가정에서 행해지는 문해활동을 보면 책을 읽어주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활동임을 알 수 있지만, 책을 활용한 다양한 문해경험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후속 이야기 만들기 같은 총체적 언어접근에서의 문학적 활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어머니의 신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에 대해 어머니들의 지지는 매우 높지만(4.40), 책의 작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지지도는 이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3.10). 동화책을 활용한 다양한 문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머니가 가진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신념과 실제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문해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체적 언어신념이 높을수록 낱글자를 반복적으

로 쓰게 하는 문해활동의 빈도는 적어진다. 반면에, 총체적 언어신념이 높을수록 아이의 쓰기를 격려하고, 다양한 책을 읽어주고, 글이나 그림을 벽에 전시하거나, 동화를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기 등의 활동은 더욱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함을 보여준다. 상관계수의 유의수준이 10%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총체적 언어신념이 높을수록 틀린 글자의 수정을 덜하고, 총체적 언어신념이 높을수록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아이가 책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가진 문식성 발달에 대한 신념은 가정에서 자녀와 행하고 있는 문해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가 가진 언어적 신념과 가정에서의 문해환경과의 상관관계는 총체적 언어 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환경을 연구한 홍인숙(2001)의 연구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해발달에 대한 태도와 가정의 문해환경의 상관관계를 밝힌 김명순과 권희경(2002)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의 신념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실제 문해활동과도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와 행하는 어머니의 문해활동이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는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신념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언어교육을 위한 가정과 교육기관의 연계 방향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가정에서의 문해활동의 실재는 어머니에 의해서 스스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정에서 행하는 문해활동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가정에서의 실제 문해활동 평가를 위해서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머니의 신념 측정에도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로 깊이 있는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에서의 실제 문해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설문조사가 행하여졌으므로 연구대상을 일반화하는데 지역적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총체적 언어접근, 문식성 발달, 어머니의 신념

참고문헌

- 권희경, 송진숙(2000) 걸음마기 및 유아기 부모들의 발생적 문식성에 대한 태도와 가정에서의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15.
- 김명순, 권희경(2002)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 문해 발달에 대한 태도 및 가정 문해환경. *대한가정학회지*, 40(1), 147-162.
- 김명순(1999) 4-5세 아동의 읽기-쓰기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 환경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3, 120-131.
- 김정규, 김남미(1997) 문학적 접근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유아 교육학논집*, 1(2), 5-27.
- 위영희(2004) 유아문해교육에 대한 접근방법 탐색.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9, 95-116.
- 유승연(2000) 총체적 언어 접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유아 교사의 신념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1(1), 201-214.
- 이성은, 오은순(2002) 문학중심 총체적 언어교육 활동 개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0, 167-199.
- 이성은, 황영미(2003) 동시를 통한 총체적 언어교육이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국어교육*, 22, 305-334.
- 이옥섭(2001) 균형 있는 문해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0(1), 210-232.
- 이차숙, 노명완(1994) 유아언어교육론. 동문사.
- 이향재, 한복연(2000) 총체적 언어 접근 활동이 유아의 문해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27-56.
- 정숙경(2001a) 총체적 언어접근과 유치원 유아의 문해지도 방안. *학생연구*, 29, 97-115.
- 정숙경(2001b) 유치원 교사들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 및 실천 분석. *대학원논문집*, 26, 69-103.
- 정숙경(2004)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해성 지도 접근방식 및 신념. *초등교육연구*, 17(1), 101-126.
- 제경숙(2002) 유아언어교육의 총체적 접근. *인문논총*, 15, 347-365.
- 조정옥, 이달석(2002) 총체적 언어접근의 저널쓰기가 유아의 쓰기능력과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교과교육연구*, 23(2), 1-33.
- 홍인숙(2001) 총체적 언어 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 환경;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u, KH, Carroll, JH, Scheu, JA(1997) *Balanced literacy instruction: A teacher's resource book*. Norwood, MA: Christopher-Gordon Publishers, Inc.
- Campbell, FA, Goldstein, S, Schaefer, ES, Ramey, CT(1991) Parental beliefs and values related to family risk,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child academic compete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2), 167-182.
- DeBaryshe, BD(1995) Maternal belief systems: Linchpin in the home read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1), 1-20.
- Goodman, KS(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emann.
- Goodman, KS(1992) I didn't found whole language. *The Reading Teacher*, 46, 188-198.
- Harste, JC, Woodward, VA, Burke, CL(1984) *Language stories & literacy lessons*.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Senechal, M, Lefevre, JA(200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ading skill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2), 445-460.
- Snedecor, GW, Cochran, WG(1989) *Statistical methods*. Ames,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Stipek, D, Milburn, S, Clements, D, Daniels, DH(1992) Parents' beliefs about appropri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2), 293-310.
- Sulzby, E(1986) Children's emergent reading of favorite storybooks: A developmental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458-481.
- Teale, W, Sulzby, E(1986) Introduction: Emergent literacy as perspective for examining how young children become writer and readers. In WH, Teale, E, Sulzby(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Norwood, NJ: Ablex.
- Yoo, S(1996) A study of how early childhood teachers' beliefs reflect their use of the whole language and traditional approach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Ph. D. Dissertation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2005. 05. 03 접수; 2005. 06. 09 채택)